

설교 제목: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나눔 선교 교회

엄 성현 목사
04/20/13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취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사야 60 장 1,2 절

보스톤 마라톤 대회에서 goal in 하기 위해 달려 오는 아빠를 설래이는 가슴으로 기다리던 8 살짜리 아이가 폭탄의 파편을 맞고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그런데 범인을 잡고 보니 정신이 온전치 못한 19 살의 젊은이였습니다. 세상이 너무 crazy 하고 어둡습니다. 어느곳에든지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듯합니다. 성경은 이사야 60 장에서 세상이 “캄캄한 어두움으로 온통 뒤덮혀 있을 것” 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어두움을 몰아낼 유일한 빛이 임했기 때문이라고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여기서 어두움은 영적인 어두움입니다. 삶을 온통 어둡게 하는 어두움이지요. 증상적인 어두움이 아니고 원인을 제공해 주는 어두움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어두움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릇된 생각이나 오해, 그 자체를 가르킨다고 지적합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삶을 어둡게 한다고 통찰합니다.

잉카문명의 고적들이 있는 켄쿤을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한 곳을 갔는데 그곳에는 바윗돌을 깎아 만든듯한 깊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 보면 아찔할만큼 꽤 높은 꼭대기에 확실한 돌계단이 있었습니다. 마야족들은 하나님이 항상 노여워하고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분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그 가든들이 가진 가장 값어치있는 것들을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뭘 바쳤는지 아십니까?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갓 태어난 아이를 매해가 시작되는 첫날에 그 연못에 던지는 끔찍한 일들을 서로 다투어가며 먼저 바치려고 아귀다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릇된 하나님관이 우리들 삶에 어떤 어두움들을 가져 오는지 보여주는 한 실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빛은 어두움과 반대되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깨달음을 나누어 받기 위해 온 세상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몰려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을 갈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다

끝에서도 온다고 했습니다. 아마 해적단들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 몰려 든다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바다 밑에서 얻은 온갖 은과 금을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귀족들도, 갑부들도 몰려 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동에 있는 미디안 광야의 약대상들도 비싸게 잔 비단이나 양탄자를 실고 올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얼굴에서 광채가 날것이며 마음이 놀라움으로 가득차서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이라고” 까지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추구는 가장 중요한 추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도 참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는 간절한 열망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picture 가 잘못되면 삶이 어그러지고 망가집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잘못 그리게 되면 온갖 혼란과 모순 속에 빠지게 됩니다. 삶이 무엇이고 인간됨이 무엇인지조차도 전혀 감을 잡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을 편애하셔서 택하시고 온갖 혜택과 특혜를 Exclusive 하게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1.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도 편애하시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19:15(눅 20:21; 잠 18:5)-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있는 자라고 두호(favoritism)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찌니
욥 34:19-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니라.”

2. 하나님께서 편애하실 수 없으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만 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에게는 사랑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자기의 권능의 손을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신명 7:7,9

c. 가난한 자, 못 가진자, 왜면 당하는자, 소외된 자, 억울하고 부당한 대접을 받는 자들을 돌보라고 많이 축복해 주셨음.

El Shadai

레 19:10 절-수확할 때에도 가난한 자,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위해 충분히 남겨 두라고 지시하심.

잠 22:2 절-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 31:9 절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간곤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찌니라.

스 7:10 절-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갈 2:10 절-

2.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신 이유

눅 14

3. 오늘 내가 존재하는 이유

2 cor 6:3